

금형산업 광주경제 이끈다

10 광주일보

제17608호 2006년 11월 22일 수요일

주가	환율	금리
3.69	+0.10	+0.04
1,405.90 (코스피지수)	935.50원 (원/달러)	4.73%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607.43	(-0.81)
다우(20일)	12,316.54	(-26.02)
나스닥(20일)	2,452.72	(+6.86)
닛케이	15,734.14	(+8.20)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8.08엔	(+0.03)
유로 달러 환율	1,281.4달러	(-0.13)
3년만기 회사채	5.07%	(+0.04)
클레리	4.46%	(-0.01)

청과·채소류 브랜드 '햇뜻' 첫선

전남농협 풍광수토·순수한우 이어 개발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가 광역단위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햇뜻'을 새롭게 개발하고 첫선을 보였다. 일반인 공모와 디자인 전문업체의 용역을 통해 탄생된 '햇뜻'은 '살아있는 자연 그대로 신선함을 지닌 농산물'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전남농협은 기존의 품목별 공동브랜드인 '풍광수토(양곡)'와 '순수한우(축산)'가 전남 농축산물 판로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 '청과·채소류'를 대표하는 광역 브랜드 '햇뜻'을 개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남농협은 생산 및 품위규정을 준수하고 공동선별을 통해 상품화한 우수농산물에 이 브랜드를 사용키로 하고, 올해 도단위 연합사업 품목인 애호박을 시작으로 섶초·대봉·양파 등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산업설비 자동화시스템 업체 '손택' 순천대에 부설연 개소·신제품 개발

산업설비 자동화시스템 소프트웨어 생산업체인 (주)SONTEC(광양·대표 이동진)이 최근 순천대 공대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열고, 본격적인 기술개발 활동에 들어갔다. 이 연구소는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시설 사용료, 장소임대료 등 소요비용(1억원 한도)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설립됐다. 이동진 대표는 "그간 연구개발 과정에서 전문인력과 실험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부설연구소 개소로 신제품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99년 설립된 (주)SONTEC은 철강분야 IT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첨단 기술인 RFID(무선인식시스템) 연구개발에 몰두해왔으며 무선통신 인식시스템, 바코드 인식시스템 등 생산해 연간 3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금형산업이 광주경제를 견인할 든든한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금형시험생산센터(Try-Out) 설립과 함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로 매출과 수출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기록하는가 하면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금형산업 기반 다졌다=지난 2004년 광주금형산업진흥회(회장 김성봉)가 발족한 이후 광주·전남지역에 위치한 220여개 관련업체 가운데 100여개 업체가 진흥회에 가입했다. 또 광동산업단지내에 2만3천평 규모의 1차 공구가 조성되면서 외지기업 10여개를 포함, 모두 17개 업체가 자리를 잡았다. 이어 5만3천평의 2차 공구가 내년 분양되면 40여개 업체가 입주해 명실공히 국내 최대의 금형클러스터로 부상

220개업체 자동차·가전 등 주력 산업 뒷받침 향후 5년 1,500개 일자리...성장엔진 자리매김

한해 된다. 지난해 회원업체의 매출은 3천381억원으로, 2004년 2천574억원에 비해 36%가 증가했다. 이는 전국 금형업체 성장률(20.8%)과 광주지역 전체 산업 생산 증가율(20.6%)을 크게 웃돈다. 비회원사까지 포함할 경우 매출액은 4천270억원에 달해 금형산업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수출액은 1천759억원으로, 전국 1조2천398억원의 14.2%를 차지했으며 종업원수는 2004년 1천763명에서 지

난해 1천9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 회장은 "현재 경인지역 업체들의 클러스터 입주분위가 쇠돌해 기업유치 효과가 예상의 성과를 거둘 것 같다"면서 "매출액도 2008년 시험생산센터가 정상 가동되면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인력 양성한다=진흥회는 2004년 광주시가 추진한 RIS(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에 따라 조선이공대·한국폴리텍5대학과 산·학협약을 체결, 올해 금형학과를 졸업한 210명의 일자리를 마련

했다. 또 조선이공대-캐나다 퀘벡대학간 글로벌 금형인력 양성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형설계아카데미'를 개설해 연간 30명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개발 훈련을 진행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향후 5년간 1천5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업체들의 규모확대와 신규업체 창업, 수출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소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술로 승부한다=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금형시험생산센터는 올해 1차 준공에 이어 오는 2008년 마무리공사를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119억원이 투입돼 2천500평 규모로 지어질 시험생산센터는 프레스·사출기 등 각종 장비를 구축, 관련업체의 신기

▲금형(金型·metallic pattern)=같은 형태와 질의 제품을 대량생산하기 위해 금속재료를 만든 틀을 말하며, 최근에는 첨단기법이 도입되기도 한다. 공산품의 80%가 금형을 이용해 만들어진다.

술 및 신제품 개발의 핵심기관으로 활약할 전망이다.

이 센터를 발판으로 진흥회는 세계 최초로 '금형품질 인증제도'를 구축, 국내외 구매자들이 요구하는 제품에 대한 표준인증을 해주는 한편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 회장은 "정부와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 집적효과에 따른 정보교류, 공격적인 국내외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프로젝트가 오늘의 광주금형을 일궈냈다"면서 "앞으로도 신기술·제품 개발, 신규사업 진출 등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광주상의가 주최한 제3차 광주·전남고용포럼이 21일 광주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역 노사정협의의 활성화와 광주지역 여성경제활동 증대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주제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카드 사용 하루 1,000만건 육박

체크카드 이용 급성장세 (20.8%)와 금액(5.1%)이 모두 증가했다. 카드종류별로는 체크카드의 이용실적이 두드러졌다. 3분기중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하루 평균 98만건, 3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62.4%)와 금액(53.0%)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체크카드 발급장수도 지난해 9월 1천760만3천장에서 올 9월말 2천553만장으로 45% 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1인당 체크카드를 1.06장씩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처음으로 1장 이상을 기록했다고 한은은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올 김장 비용 11만 5,000원

4인가족 기준 올해 김장 비용은 4인 가족 기준 11만5천460원 정도일 것으로 전망됐다. 2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작황 호조에 따른 배추와 김장재료의 전반적인 가격 하락으로 4인 가족 기준 김장비용이 지난해 17만400원에서 32.2%가 내린 11만5천46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추의 경우 지난해 11월 20포기당 6만원이던 가격이 올해에는 2만2천500원으로 62.5%나 급락했으며, 무는 10개 기준 2만4천원에서 5천원으로 79.2%가 하락했다. 또 쪽파는 2단에 지난해 8천원에서 올해 4천원으로 절반이 떨어졌으며 대파는 1단에 1천900원에서 1천500원으로 하락했다. 반면 굴과 고추가루, 생강 등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3~20%가 상승했으나 김장 재료의 전반적인 가격 하락세가 뚜렷해 김장비용의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신기술' 대통령 표창받은 한국고벨 장호성대표 조선소 등 최첨단 운반·하역기 개발

"지난해부터 양산에 들어간 DB호이스트는 제철·조선소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으로 불리는 턴오버(뒤집기) 작업을 가능케 하는 최첨단 운반·하역기계입니다." 한국고벨 장호성(57) 대표는 "앞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국내 시장을 평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고벨은 이 DB(Digital Brains) 호이스트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위원의 '신제품 인증(NEP·New Excellent Product)'을 획득한 데 이어, 최근 산자부 기술표준위원이 주최한 '2006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광주 출신인 장 대표는 "DB호이스트는 타사제품에 비해 작업능률은 2배 향상된 반면 가격은 40% 낮아 글로벌 시장에서도 '블루오션 제품'으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이 제품은 한국고벨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데 든든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한국고벨은 북미와 중국 등에 법인회사를 설립한 데 이어 말레이시아 바론랜드 공사현장에 들어갈 250t급 수문개폐용 크레인 6대를 제작중이다. 또 올초 미국의 P&H사와 향후 5년간 체인호이스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1976년 설립된 한국고벨은 매출액 대비 10%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R&D)에 투자해 특허 6건, 실용신안 8건 등 무려 150여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신기술 보유업체로 손꼽힌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여행객 외투보관 서비스 아시아나, 24일부터 아시아나항공(대표·강주안)은 24일부터 내년 3월4일까지 더운 지역을 여행하는 국제선 이용객들의 겨울외투를 무료로 공함에 보관해주는 '외투 무료보관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아시아나 클럽회원과 퍼스트, 비즈니스 승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예약없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아시아나항공 A아일랜드(국내선 전용 카운터)에 외투보관을 신청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